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15. 청구인에게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30.부터 인천광역시 ○○구 ○○○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9. 6. 15:00경 이 업소내 ‘멘토스’크레인 게임기에 5,000원 이상의 경품인 소비자 판매가격 40,380원 상당의 차량용 청소기 1개를 진열한 행위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8. 9. 21.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경품 지급기준 1차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8. 10. 1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2018. 11. 10. ~ 12. 9.)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연수경찰서에 적발되어 1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을 받았으며, ② 사건발생에 따른 단 1차례의 시정,

경고도 없이 판결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본 사안에 대해 시정 경고 등의 조치 없이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처분은 연수경찰서 수사과의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 공문, 검찰청 처분 결과(구약식)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 4.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여부

####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6. 12. 30.부터 인천광역시 ○○구 ○○○에서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청구인은 2018. 9. 6. 15:00경 이 업소내 ‘멘토스’크레인 게임기에 5,000원 이상의 경품인 소비자 판매가격 40,380원 상당의 차량용 청소기 1개를 진열한 행위로 인천연수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인천연수경찰서장은 2018. 9. 18.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 9. 21. 인천지방법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4) 위 2)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8. 9. 21.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 경품지급기준 1차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18. 10. 1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2018. 11. 10.~ 12. 9.)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위 2)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약식명령서상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구 ○○○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6. 15:00 경 위 주소지에 설치한 ‘멘토스 크레인게임기’에 소매가 5,000원을 초과하는 키친아트 렉스 차량용 청소기 PK-901을 제공하였다.

## 다. 판 단

###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

다 하였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제 2호 경품의 지급기준에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면 2. 개별기준 라목 3)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업소관리인이 이 사건 업소 내 ‘멘토스’크레인 게임기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경품인 ‘키친아트 렉스 차량용 청소기 PK-901’를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바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사건발생에 따른 단 1차례의 시정, 경고도 없이 판결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8. 11. 14. 자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게임산업법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면 2. 개별기준 라목 3)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형사사건과 별개의 건으로 위반 행위가 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2018. 9. 18. 인천연수경찰서장의 범죄사실 통보와 2018. 9. 21.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의 구약식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에 없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의무를 관련 법령으로 부여받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다소간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지라도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이라는 공익상의 가치가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